‘수석합격’ 결정권자의 득실

(에스겔 43:1~27)

1.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2.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3.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4.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수석합격’ 결정권자의 득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수석합격’ 결정권자의 득실

한 인터뷰의 내용을 인용하며 말씀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합격까지는 조심스럽게 예상했지만 수석합격은 정말 꿈도 꾸지 못했어요.”라고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사법고시가 있을 때에 수석합격을 했던 학생의 말입니다. 합격을 예상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합격을 하느냐 마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수석합격 경험자가 있으실 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저 또한 그랬듯이 꼴찌의 위치에서 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꼭 시험뿐만이 아니라도 사회가 경쟁 중심이기 때문에 수석합격은 항상 가문의 영광이고, 이에 더해 최연소 수석합격이라면 동네가 뒤집어질 만도 합니다.

강릉은 시골이라 그런지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OOO씨 자녀 수석합격! OO 초등학교 O회 졸업생”이런 식으로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쟁에는 수석합격자 혹은 1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석합격자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수석합격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인생의 일생일대의 손해가 생겨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수석합격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지원자라는 사실을 운명처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는 수석합격 결정권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는 것만큼 커다란 인생의 손실은 달리 없습니다.

오목을 예로 들어봅니다. 오목의 하수들은 공격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공격하는 것을 상대가 막으려고 애쓰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에 열중하다보니 어느덧 꼼짝없이 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수석합격자의 자리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석합격을 위한 지원자의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수석합격은 고사하고 상위 등수에도 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경쟁을 포기하는 낙오자의 길을 선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실은 수석합격 결정권자입니다. 백 번을 도전하는 것보다도 올바르게 한 번 그 결정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자로써는 골찌에 가까운 삶을 살았더라도 결정권자로서 수석합격자를 배출해내기만 한다면 인생은 뒤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수석합격 지원자로써의 삶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본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수석합격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지원자의 삶을 완전히 포기할 때에 수석합격 결정권자로서의 삶은 시작 될 수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수석합격 결정권자의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또 나의 결정을 통해 수석합격 여부가 판정되는 지원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묘미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나에게 합격 받고 싶어 하는 세상의 대상은 수두룩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마음은 비어있게 지음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장님은 흑자를 원하는 마음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장님은 이 주머니를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회사에서 일하게 합니다. 한편 나도 내 마음의 주머니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주머니는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습니다. 사장님들이 흑자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를 합격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합격시켜야 합니다. 마음을 채워줄 수 있으리라 믿어지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 지원자 명단에는 이 세상의 돈이 마음을 채우겠다고 하고, 권력이 마음을 채우겠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 등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가치들이 내 마음에 합격하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지원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자 중에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나의 선택을 기다리신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대상들을 선택합니다.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인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라는 제안을 가지고 지원자들 틈에서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수석합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지원하는 대상들 중에서 누구를 수석합격자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이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수석합격자로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은 백 번을 경쟁해도 수석합격은커녕 상위등수에도 들 수 없어서 좌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수석합격자로 결정함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수석합격 결정권자로써의 판단을 내릴 때입니다. 더 이상 지원자로써의 삶을 살지 말고 결정권자로써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수석합격자로 발표할 때에 삶은 완벽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하나님이 수석합격자 되시는 모습을 본문에서는 '영광'이라는 말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수석합격자가 되신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돈을 이기시고, 권력도 이기셨고, 가족까지도 이기셨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부흥과 형통 등도 이기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공과 부흥과 형통조차도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하나님만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스런 아내나 믿음직한 남편과 나의 미래로 생각되는 자녀들도 내 마음 채움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수석합격자는 하나님뿐이라는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은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되돌아오는 환상을 통해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6~12절에서는 선민들의 거룩함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수석합격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선민들의 입장에서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13~27절까지는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끌어안을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유로 번제단이 언급됩니다. 번제단을 생활화함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감이 마음에서 가장 크고 무겁게 느껴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영광은 하나님이 홀로 계시면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속성입니다. 즉 내가 다른 모든 대상들보다도 우선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마주대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은 천사들과 많은 존재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과의 관계에서 오직 수석합격자의 자리에서만 관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성은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 그렇습니다. 지구

의 절반은 이성이지만 마음에서 1등을 하게 된 사람이 결혼 상대자가 됩니다. 마음에서 수석합격자가 되는 것이기에 결혼은 두 사람에게 있어서 수석합격을 확인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수석합격자로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환상으로 봅니다. 이는 회복된 선민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해나갈 때에 하나님을 수석합격자로 결정할 준비가 됨을 의미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큰 파도가 부딪히는 절벽이나 쏟아지는 폭포 옆에 있다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큰 물소리에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수석합격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대상의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결혼의 예를 들어봅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여인의 남편으로써 살아갑니다. 마음에서 아내로 인해 생겨난 기쁨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수석합격자로 선택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돈을 수석합격자로 선택했다면 돈의 영광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무엇을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돈이라는 판단기준을 가지게 되고 돈의 빛 아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석합격자로 선택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거룩함과 번제로 연결됩니다. 8절을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라고 하였습니다. 선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그 결과 선민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이외에 세상의 가치들을 마음의 수석합격자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건강 혹은 부흥과 자녀의 형통 등의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음의 수석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이러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사야서 42장 8절을 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코 나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에서 하나님을 수석합격자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나를 거룩하다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곧 좋게 구분됨입

니다. 이 세상의 어떤 대상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우시기에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해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은 돌아가게 되고 그러한 나의 마음은 거룩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윤리적인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룩해지기 위해서 윤리적 행동을 강조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윤리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두시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윤리를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윤리적인 행위로 거룩함을 가장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더러워질 뿐입니다. 거룩함은 오직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마음 속 더러움이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존재들에게 수석합격의 명예를 안겨준 상태가 바로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상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아끼고 사랑하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수석합격자 자리에서 자녀로 인해 밀려나면서 내 마음에 더러움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마음으로 자녀에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더러움이 묻어나면서 거룩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하나님을 수석합격자로 결정하지 못한 더러움의 상태에서 계명과 율법을 어기는 행위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은 결코 계명과 율법의 윤리적 차원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통해 완성된 윤리의 차원을 지향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바가 이와 같습니다. 완성은 강요된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거룩하면 율법과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수석합격자로 인정받는 상태가 영광이고 내게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과 관계하실 때에는 반드시 영광과 거룩함의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고 유지할 방법으로 번제단이 제시됩니다.
이제까지 환상으로 본 성전의 모습과 기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번제단에 대해 유독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번제단이야 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내게 거룩함이 주어지는 일석이조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의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생활화가 곧 이에 해당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은 자로 인정할 때에 거룩함은 회복됩니다.
우리는 원죄의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만든 세상의 가치체계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자 하는 친화력이 바로 원죄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과 출세를 최고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후에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만들어낸 가치체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가 침투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펴보면 걱정과 근심의 이유가 금세 드러납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치체계에 근거하여 돈이나 건강 혹은 출세 등을 획득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걱정과 근심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다시 태어난 깨끗한 마음으로 유일한 수석합격자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림으로써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해진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성경은 참 기가 막힙니다. 저 또한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대학입시만 해도 삼수를 했고, 달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집안도 꼴찌였습니다. 한 때는 수석합격자의 자리를 노려본 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삶은 꼴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꼴찌의 자리도 상관없습니다.
다윗은 여덟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다윗을 아예 부르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며 수석합격자로 인정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노릇을 하는 꼴찌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수석합격자로 모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고 창녀 출신이었습니다. 수석합격자 지원자들의 삶에 끼어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천대받는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그 꼴찌가 예수님 한 분을 수석합격자로 모신 결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제1호 교인이 된 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1등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1등을 하는 경쟁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채움을 위한 대상들 중에서 하나님을 수석합격자로 모시고 인정해드릴 때에, 이 땅에서의 삶 전체는 창조주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빛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떻게 인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결코 망하거나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시편 23편 1절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다윗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수석합격자로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돈 건강 장수 등을 불합격시킵니다. 자녀의 형통도 불합격시킵니다. 마귀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내 마음에 채울 수 있는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대상들을 불합격시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수석합격자로 인정해드릴 때에 굉장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세상의 가치들을 불합격시키는 과정입니다. 설령 그 대상이 원수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마음에 담게 되는 이유는 원수가 나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원수를 마음에서 합격시키기도 하고, 또 좋아할 대상으로써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 등을 합격시킵니다. 심지어 선민들조차도 이렇게 세상의 가치들을 마음에서 합격시키고 나서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나온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라는 말씀대로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기쁨을 위해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합격시킨 상태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영광은 곧 1등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수록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수석합격자의 영광을 드리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마음에 세상의 가치들을 합격자로 삼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야 말로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한다면 먼저 십자가에서 마음을 죽이는 일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을 파고드는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려 거룩함을 이루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유일한 수석합격자로 결정하여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그 동안 참 많이도 울고 패배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석합격자가 되기 위한 지원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석합격자의 결정권자가 되어서 십자가 붙잡고 이 세상 모든 대상들에게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유일한 수석합격자로 결정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만 진행되는 약속의 땅 복지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